『OECD Focus』 독자 설문조사

『OECD Focus』 편집위원회

1. 설문조사 실시의 배경

주요 선진국이 주축을 이루는 OECD는 회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환경,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정보통신 등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토의를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일종의 포럼(Forum) 형태의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보의 보고(寶庫)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OECD Focus』는 이러한 OECD의 각종 관련 활동과 그 논의 결과를 국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5월부터 격월간으로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발간하여 정부, 학계, NGO 등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OECD Focus』 편집위원회는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발간된 총 15권의 편집내용과 출판형태를 돌이켜보며, 창간(創刊) 당시의 발간목적이 제대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초~11월 중순 동안 총 670명의 배포대상 중 무작위로 추출된 독자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답변회수율은 10%(21명)이었습니다.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내용(별첨 참조)에 대한 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록내용에 대한 유의성 평가

수록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의하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표 1>에서 보듯 20명(95%)으로 나타나 OECD의 다양한 활동을 전달하는 데 그런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당초의 발간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 1〉 수록내용의 유익성 평가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매우 유익하다	10	47.62	10	47.62
유익한 편이다	10	47.62	20	95.24
보통이다	1	4.76	21	100.00

나. 주로 읽는 부분 (복수 선택 가능; 전체 선택 중 결과)

『OECD Focus』의 내용 중 주로 읽는 부분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각 부분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는데(표 2 참고), 「특별기고」와 OECD 현안에 대한 분석내용인 「OECD Close-up」을 읽는 독자가 각각 14명(32.6%), 11명(44.18%)으로 높았으며 「OECD+DDA」에 8명(14%)이 응답하였습니다. 「위원회 리포트」는 분야별로 상당히 전문화되기 때문에 독자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 2〉 독자가 선호하는 부분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특별기고	14	32.56	14	32.56
OECD Close-up	11	25.58	25	58.14
OECD+DDA	8	18.60	33	76.74
OECD 동향속보	6	13.95	39	90.69
OECD 위원회 리포트	4	9.31	43	100.00

다. 수록내용의 난이도

OECD의 논의내용은 사안에 따라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독자가 13명(61.3%)이고 쉽다고 응답한 독자들까지 포함하면 76%가 『OECD Focus』의 내용을 비교적 평이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 3 참고).

〈표 3〉 수록내용의 난이도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보통이다	13	61.90	13	61.90
어려운 편이다	5	23.81	18	85.71
쉬운 편이다	3	14.29	21	100.00

라. 표지 및 본문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 평가

『OECD Focus』 표지, 본문의 디자인 등 출판형태에 대해서는 좋다는 응답이 <표 4>에 보듯이 20명(95.24%)으로 나타나 독자들이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4〉 표지 및 본문의 출판형태 평가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좋은 편이다	16	76.19	16	76.19
매우 좋다	4	19.05	20	95.24
보통이다	1	4.76	21	100.00

마. 원문파일 온라인(Online) 공개 인지 여부

『OECD Focus』 창간호부터의 본문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홈페이지에 독립된 배너(banner)로 연결시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6.67%가 알고 있지만 아직 7명(33.3%)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표 5 참고).

〈표 5〉 『OECD Focus』 온라인 제공 인지 여부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알고 있다	14	66.67	14	66.67
모르고 있다	7	33.33	21	100.00

바. 서점 판매 및 유료회원제 도입 여부

현재 『OECD Focus』를 무료로 배포하는 데 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유가화가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무료배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11명, 55%)을 제시하였습니다. <표 6>에서 무료배포와 유료화에 대한 응답은 비슷하게 경합을 보였습니다.

〈표 6〉 판매 및 유료회원제 도입 여부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장기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는 무료배포만 실시한다	11	55.00	11	55.00
무료배포만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5	25.00	16	80.00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4	20.00	20	100.00

사. 현재 배포대상인 정부부처, 연구기관,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담당자 외에 추가로 배포 또는 홍보를 확대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대학 및 공공도서관, 기업체, 언론기관, 논문 기고자 및 원하는 개인이 제시되었습니다.

아. 위 내용 이외에 『OECD Focus』 발간과 관련하여 의견을 부탁드린 결과 신간안내 이외에 OECD 발간물이나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는 글을 원하는 독자, 눈높이를 낮추지 말자는 제안, 발간부수 확대 요망, 『OECD Focus』를 한글제목과 동시 표기, 그리고 사회, 노동, 보건, 교육분야 등 사회적 갈등이 많은 분야에 대한 선진국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3. 종합 및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

바쁘신 중에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 창간 이후 『OECD Focus』는 수록내용(95% 유익)과 출판형태(95% 호의적) 면에서 전문지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로 읽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국내외 고위공직자가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OECD와 관련하여 한국에 시사성 있는 전망을 담는 「특별기고」에 대한 선호도가 그 중 높은 것(33%)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과 집필의 난이도에 대하여는 대다수(86%)가 비교적 쉽다고 응답하였으나 응답자의 24%가 “어려운 편”이라고 함으로써 향후 『OECD Focus』의 수록 내용을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저자들이 가능한 한 쉽게 집필하도록 유도하고 각주를 통하여 설명을 보완하는 등 비교적 전문적인 내용이 평이하게 전달되도록 편집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과일 온라인(Online) 등재에 대해서도 홍보가 보다 필요하며(34% 모르고 있음), 장기적으로 유료화를 실시하는 것에는 상당수 응답자가 찬성(75%)하면서도 현시점에서의 유료판매와 회원제 실시에 대해서는 20%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포대상에 관해서는, 특히 기업체에 대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OECD Focus』가 OECD의 다양한 활동,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충실하고 친숙하게 국내에 전파하는 창구로 기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OECD Focus』에 대한 독자 의견 조사표

인사드립니다.

『OECD Focus』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주요 정책적 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는 OECD 활동 중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학교, 시민단체,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국내에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알찬 『OECD Focus』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귀하의 고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협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OECD Focus』 편집위원회

작성자 개요	소속 : 직위 및 성명 : Tel : email :	Fax:
문의 및 제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배선희 출판팀장 (☎ 02-3460-1080/fax, 3460-1144/ shba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현정 (☎ 02-3460-1142)	
제출방법	e-mail 또는 fax로 송부	

1. 『OECD Focus』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① 매우 유익하다. () ② 유익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유익한 편이 아니다. ()
 ⑤ 전혀 유익하지 않다. ()

2. 『OECD Focus』의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을 주로 읽으시는지요? 복수 응답이 가능합니다.

- ① 특별기고 () ② OECD Close-Up () ③ OECD+DDA ()
 ④ OECD 위원회 리포트 () ⑤ OECD 동향속보 ()
 ⑥ 기타:

3. 『OECD Focus』의 관련 내용을 읽으실 때, 그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지요?
- ① 매우 어렵다. () ② 어려운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려운 편이 아니다. ()
 ⑤ 매우 어렵다. ()
4. 현재 『OECD Focus』는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유가판매를 서둘러야 한다. ()
 ② 유가판매는 향후 검토사항이다. ()
 ③ 현재의 무료배포가 합당하다. ()
 ④ 잘 모르겠다. ()
5. 『OECD Focus』의 표지와 본문의 디자인, 편집체제, 글씨 크기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매우 좋다. () ②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좋지 않은 편이다. ()
 ⑤ 매우 좋지 않다. ()
6. 『OECD Focus』의 기존 발간 원문파일이 외교통상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르고 있다. ()
7. 현재 배포대상인 정부부처, 연구기관, 시민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공공도서관 등의 업무 담당자 외에 추가로 배포 또는 홍보를 확대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8. 위 내용 이외에 『OECD Focus』 향후 발전 방향(대중성 or 전문성, OECD이외의 국제경제 이슈 포함 필요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